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2018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균열된 세계에서 공동의 미래 창조

# 목 차

## ■ 2018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균열된 세계에서 공동의 미래 창조

Executive Summary .....	i
1. 다보스 포럼의 개요 .....	1
2. 다보스 포럼이 본 2018년 세계 주요 이슈 .....	3
3. 다보스 포럼의 대안 .....	8
4. 시사점 .....	10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 경 제 연 구 실   :   정   민   연   구   위   원 (2072-6220, chungm@hri.co.kr)

## Executive Summary

### □ 2018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 다보스 포럼의 개요

제 48회 다보스 포럼은 2018년 1월 23일~2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다보스 포럼의 핵심 주제는 '균열된 세계에서 공동의 미래 창조(Creating a Shared Future in Fractured World)'이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 등 각국 정재계 인사 약 3,0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경제 발전', '다극·다개념 세계로', '사회 분열 극복', '신기술의 통제 체계'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약 400개 이상의 세션에서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아이디어 및 의견을 공유할 전망이다.

#### ■ 다보스 포럼이 보는 2018년 세계 주요 이슈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주요 논의될 주제를 보면, 2018년에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주목된다.

**(글로벌 경기 회복 지속 여부와 저성장 고착화 우려)** 최근 세계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률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글로벌 경기 회복 지속 여부와 저성장 고착화 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세계 경기 회복으로 주요 기관들은 2018년 경제 전망치를 상향조정했지만, 향후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이 없다면 세계 잠재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향후 10년간 잠재 성장률은 2.3%로 최근 5년 2.5%보다 0.2%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래 산업 생태계 대비)** 미래 산업 생태계에 대한 분석과 대비를 통해 기술 혁명이 산업 전반에 미칠 잠재적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여 경제 성장 원동력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최근 미래의 생산 시스템에 대한 준비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의 디지털화 인한 경제적 효과가 약 10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들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분석 통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

**(사회적 불균형 지속과 기술 격차(Skills-Gap) 대비)** 빈부 격차, 성별 격차 등 사회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되면서 기술 격차(Skills-Gap)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세계 인구 1% 미만이 전세계 자산의 46%를 소유하면서 빈부의 격차는 확대되고, 여성의 경제 및 정치 활동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래 노동시장에서는 고학력/고기술의 인재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술 격차(Skills-Gap) 확대에 의한 사회적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 및 지역 분쟁 확대)** 최근 글로벌 거버넌스 약화로 다양한 지역내 갈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국가간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근 테러, 범죄, 패권 경쟁, 정치적 불안 등으로 글로벌 평화지수는 10년 전에 비해 악화되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보호무역조치 건수는 2017년 33,83 건으로 2006년 대비 18% 증가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리스크 관리)** 세계경제포럼에서 선정한 2018년 글로벌 리스크에서 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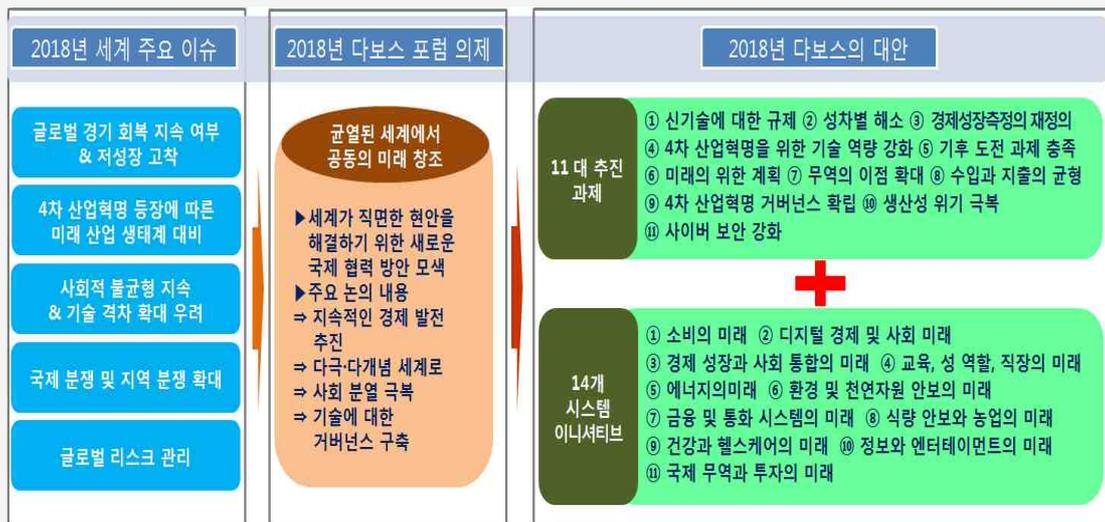
재해 및 사이버 범죄 관련 이슈들이 상위권에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이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로 인한 비용발생은 2017년 세계 평균 1.2억 달러로 2013년에 비해 60%이상 증가하였고,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2016년 2,100억 달러로 지난 5년 평균 1,8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 다보스 포럼의 대안

이번 다보스 포럼의 핵심의제는 **균열된 세계에서 공동의 미래 창조(Creating a Shared Future in Fractured World)**이다. 자국 우선주의 확대, 강대국 간의 대립 등으로 올해 정치적, 경제적 긴장감이 확대되고, 정부와 시민간의 신뢰 약화, 사회적 불균형 지속 등으로 세계는 심각한 균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촉발로 가보지 않은 미래가 다가오는 등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인류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8년 다보스 포럼은 11대 추진 과제와 14개의 시스템 이니셔티브(System Initiatives)를 통해, 세계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11대 추진 과제를 통해 다양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가져올 미래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14개 분야의 미래 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8년 다보스 포럼의 대안 >



자료 : 다보스 포럼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정리하여 도식화함.

■ 시사점

이에 한국도 적극적인 국제 공조 동참, 지속적인 성장 기반 구축, 국내외 위협 요인 대응, 사회적 갈등 축소 등을 위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글로벌 거버넌스의 참여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뿐 아니라 국내 사회의 선진화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잠재 성장력 제고 노력과 창의와 혁신 주도 경제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갈등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미래 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

## 1. 다보스 포럼의 개요

- (개요) 최근 다보스 포럼은 세계 경제·정치·사회가 직면한 현안에 대한 논의와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춤
- 다보스 포럼은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1971년에 창립한 국제포럼
  -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세계가 직면한 문제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교환의 場으로 활용
- 최근 다보스 포럼은 4차 산업혁명 등장 등에 따른 미래 시대 준비, 지속·포용적 성장 등을 강조해 오고 있음

### < 최근 다보스 포럼의 주제와 참여 인사 >

구분	주제 및 논의 내용	주요 참여 인사
2013 (43회)	- <b>유연한 역동성 (Resilient Dynamism)</b> · 글로벌 시스템 재정비 · 유연성과 민첩성 · 역동적인 지도자	대니얼 카너먼 프린스턴 명예교수(2002년 노벨경제학상)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하버드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 조셀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교 교수(2001년 노벨 경제학상) 등
2014 (44회)	- <b>세계의 재편 (Reshaping of the World)</b> · 포괄적 성장의 성취 · 파괴적 혁신의 포용 · 사회 내 새로운 기대들과의 조우	리코 단코테 단코테 그룹 회장(나이지리아) 크리스 코필라크리슈난 인포시스 부의장 주디스 로딘 록펠러 재단 회장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외
2015 (45회)	- <b>새로운 세계 상황 (The New Global Context)</b> · 분권화된 세계화, 지역간 갈등 · 글로벌 저성장, 에너지 헤게모니 · '비정상적 통화 정책의 정상화'	김용 세계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하리 바티아 주빌랜드 바티아 회장 캐서린 가렛 얼라인언스 트러스트 대표
2016 (46회)	- <b>4차 산업혁명의 이해 (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b> · 4차 산업혁명의 정의 · 4차 산업혁명의 명과 암 · 새로운 글로벌 성장 동력 발굴 · 글로벌 공조 필요 강조	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사무총장, 메이 바라 제너럴모터스 CEO 샤란 바로우 국제노동총 사무총장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티잔 티엄 크레디트 스위스 CEO 마르틴 솔츠 유럽의회 의장
2017 (47회)	- <b>소통과 책임의 리더십 (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b> · 세계 불확실성 증폭에 따른 소통과 책임감을 가진 리더십 필요 · 글로벌 경제 활성화, 시장 기반 시스템 구축,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제협력 강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안토니오 구테헤스 UN 사무총장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마윈 알리바바 회장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 마르틴 솔츠 유럽의회 의장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 (2018년 제 48회 다보스 포럼) '균열된 세계에서 공동의 미래 창조 『Creating a Shared Future in Fractured World』'라는 핵심주제로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 제 48회 다보스 포럼이 오는 1월 23일 ~ 2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
  - 약 3,000명 이상의 각국 정재계, 국제기구, 시민 사회, 예술계 등의 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
  -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 18년 만에 다보스 포럼에 참석
  - 또한 이번 다보스 포럼 참석자의 21%가 여성으로, 과거 다보스 포럼보다 여성 참여도가 높은 수준임
  - 지난해 중단되었던 '한국의 밤' 행사가 1월 25일에 다시 열리 예정
- '지속적인 경제 발전', '다극·다개념 세계로', '사회 분열 극복', '신기술의 통제 체계'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약 400개 이상의 세션에서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아이디어 및 의견을 공유할 전망

< 48회 다보스 포럼의 의제 및 참여인사 >

구분	의제와 참여 인사
주요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균열된 세계에서 미래 공유 창조 (Creating a Shared Future in a Fractured World)</li> <li>- 세계가 직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li> </ul>
주요 참여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li> <li>-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li> <li>-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li> <li>- 류허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li> <li>-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li> <li>- 시런 버로 국제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li> <li>- 류창동 징둥닷컴(JD.com) 회장</li> <li>-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li> <li>-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li> </ul>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 다보스 포럼 세션의 4대 방향 >

4대 방향	주요 내용
지속적인 경제발전 추진	▶ 공동의 번영을 위한 새로운 경제 모델 구축
다극·다개념 세계로 탐색	▶ 세계 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와 지역 간 균형점 모색
사회 분열 극복	▶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해결책 논의
기술에 대한 신속한 거버넌스 구축	▶ 기술 진보로 인한 사회적 혜택이 동등하게 보장되는 윤리적 기반과 적응력 높은 정책 마련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 2. 다보스 포럼이 본 2018년 세계 주요 이슈

### ① 글로벌 경기 회복 지속 여부와 저성장 고착화 우려 (Low Growth & Productivity)

○ 최근 세계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률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글로벌 경기 회복 지속 여부와 저성장 고착화 등에 대한 우려가 확산

- 최근 선진국의 내수 회복, 신흥국의 수출 회복세 강화 등으로 세계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주요 기관들은 2018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함

· 2017년 10월 IMF의 2018년 세계 경제 전망치는 3.7%로 2017년 7월 전망치 3.6%보다 1%p 상향 조정

· 또한 2018년 1월 World Bank의 세계전망에서도 2018년 세계 경제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보다 0.2%p 상향 조정한 3.1%(시장환율기준)로 발표

- 한편, 향후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이 없다면 향후 세계 잠재성장률은 하락할 전망

· 정책 대응이 없다면 향후 10년간 세계 잠재 성장률은 2.3%로 최근 5년 2.5%보다 0.2%p 하락할 전망

· 이는 동기간 노동과 총요소생산성(TFP) 기여도이 각각 0.4%p, 1.0%p에서 0.3%p, 0.9%p로 하락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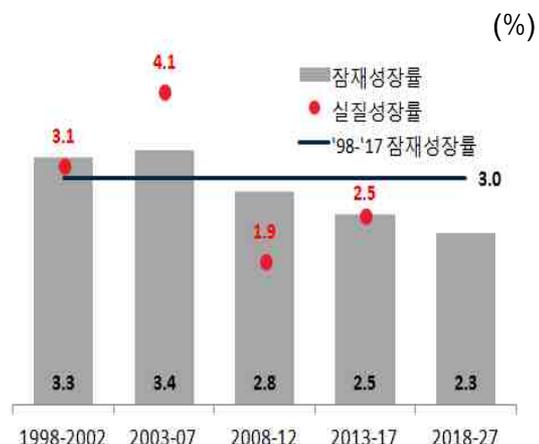
< 세계 경제 성장률 >

전망기관		2017(E)		2018(E)	
IMF	'17.7월	3.5	3.6		
	'17.10월	3.6		3.7	
World Bank	'17.6월	2.7		2.9	
	'18.1월	3.0		3.1	

자료 : IMF, World Bank.

주 : World Bank는 시장환율기준임.

< 세계 잠재 성장률 >



자료 : World Bank.

②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미래 산업 생태계 대비

○ 미래 산업 생태계에 대한 분석과 대비를 통해 기술 혁명이 산업 전반에 미칠 잠재적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여 경제 성장 동력으로 활용

- 미래 생산 시스템에 대한 기회 활용도와 리스크 대응력 등을 평가하여 각국별 강점과 약점을 분석

- 이 평가는 현재 국가의 생산 능력을 평가하는 생산의 구조와 기술&혁신, 인적자본, 무역과 투자, 제도, 수요 환경, 지속가능한 자원 등 미래 생산 원동력을 측정
- 측정결과 총 100개 국가 중 미국, 싱가포르, 일본, 중국, 한국 등 25개국이 선도국가로 선정

- 디지털화가 산업 생태계에 확산되어 산업적 순편익(Net Benefits)과 사회적 순편익(Net Benefits) 등 잠재적인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전망<sup>1)</sup>

- 디지털화가 10개 산업군에 적용된다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약 28조 달러 가치의 글로벌 순편익이 창출
- 직접적인 순편익 이외에도 산업 간의 교차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 플랫폼 경제 등의 간접효과를 고려한다면 약 100조 달러의 순편익이 발생<sup>2)</sup>

< 미래 생산을 선도할 국가 중 부분별 상위 7위 국가들 >

순위	생산 구조	미래 생산 원동력
1	일본	미국
2	한국	싱가포르
3	독일	스위스
4	스위스	영국
5	중국	네덜란드
6	체코	독일
7	미국	캐나다

자료 : WEF, A.T. Kearney, Readiness for the Future of Production Report 2018.

< 디지털화가 글로벌 10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



자료 : Accenture, WEF. 주 : 2016~2025년까지 누적액.

1) 산업적 순편익(Net Benefits): 생산성 증가와 비용(Cost) 절감, 새로운 플레이어와 새로운 사업 모델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영업이익(Operating Profit)과 부가가치(Value added) 창출 등이 포함. 또한 사회적 순편익(Net Benefits)의 의미는 고객의 비용(Cost)과 시간 절감, 일자리 창출, 환경 비용 감소, 새로운 사업모델 등장으로 고객에게 주는 만족감 및 편리성 확대 등이 포함.

2) WEF, Digital Transformation Initiative in Collaboration with Accenture, Unlocking \$100 Trillion for Business and Society from Digital Transformation. Jan, 2017.

③ 사회적 불균형 지속과 기술 격차(Skills-Gap) 확대 우려

○ 빈부 격차, 성별 격차 등 사회적 불균형 문제 지속되는 가운데, 4차 산업 혁명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되면서 기술 격차(Skills-Gap) 확대가 우려되고 있음

- 전세계 인구 1% 미만이 차지하는 세계 자산의 비중은 2013년 41.0%에서 2017년 45.9% 증가하면서 빈부 격차는 심화
  - 2017년 기준으로 개인 자산이 1만 달러 미만인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70%이며, 이들이 가진 자산의 합은 세계 자산의 2.7%에 불과
-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하는 2017년 성별 격차 지수에서 여성의 경제와 정치 참여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sup>3)</sup>
  - 0은 차별, 1은 동등을 의미하는 성별 격차 지수는 2017년 0.68을 기록
  - 세부적인 지표를 보면, 교육 성과와 건강 및 생존은 각각 0.95, 0.96을 기록한 반면 경제 참여 및 정치 권한은 각각 0.58, 0.23으로 낮은 수준임
- 기술 혁명에 따른 미래 노동시장에서는 고학력/고기술을 가진 노동력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미래 노동시장에 대비한 정규 교육과정과 직업 교육에 대한 변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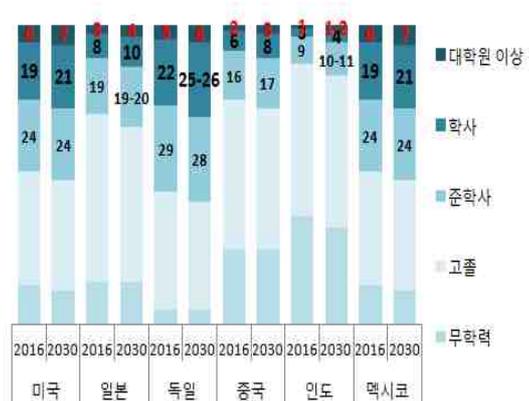
< 세계 자산별 인구 분포 >

(단위 : 백만명)



< 고학력/고기술 인력의 수요 변화 >

(노동시장 수요 규모, %)



자료 : Credit Suisse, Global Wealth Report 2017. 자료 : McKinsey Global Institute, JOBS LOST, JOBS GAINED: WORKFORCE TRANSITIONS IN A TIME OF AUTOMATION, 2017.

3) WEF,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7.

④ 국제 및 지역적 분쟁 확대

○ 최근 글로벌 거버넌스 약화로 다양한 지역 내 갈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국가 간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 상존

- 최근 테러, 범죄, 패권 경쟁, 정치적 불안 등의 확산으로 글로벌 평화 지수(Global Peace Index)는 10년 전에 비해 악화

- 글로벌 평화 지수는 2008년 2.043에서 2017년 2.120으로 악화
- 또한 2008년 대비 2017년 글로벌 평화 지수가 악화된 국가 비중은 52%, 개선된 국가는 48%차지
- 특히 내전, 정치 불안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평화지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조치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국가간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 상존

- 세계 보호무역 조치 건수는 2006년 2,855건에서 2017년 3,383건으로 약 18%증가
- 특히 위생 및 검역(SPS)과 기술장벽(TBT)이 차지하는 비중이 동기간에 63%에서 90%로 확대

< 지역별 세계평화지수(GPI) >



< 세계 보호 무역 조치 건수 >  
(건 수)



자료 :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  
주 : 1(평화)~4(비평화)를 의미.

자료 : WTO I-TIP.



### 3. 다보스 포럼의 대안

#### ○ 핵심 의제 : 균열된 세계에서 공유 미래 창조 (Creating a Shared Future in a Fractured World)

- (배경) 글로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등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심각한 세계 균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자국우선주의 확산, 강대국 간의 대립 등으로 올해는 정치적·경제적 긴장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최근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가 약화되고 사회적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확산
  - 더욱이 4차 산업혁명 등장으로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정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인류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글로벌 협력을 재강조
  - 개인, 사회, 개별, 국가, 글로벌 조직 등 모든 주체를 포함한 협력을 강조
  - 다보스 포럼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밥은 “편협한 이익을 뛰어넘어 인류 전체의 운명을 걸고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언급
- (6대 분야 주요 의제) 글로벌, 지정학적, 경제, 지역 및 국가, 산업 및 비즈니스, 미래 등 각 분야별 논의될 주요 주제
  - **글로벌** : 글로벌 거버넌스 역량 강화와 다자간 관계 개선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 기구와 긴밀한 협력 지속
  - **지정학적** :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지도자와 분야별 전문가의 아이디어 공유
  - **경제** : 낮은 성장률, 생산성 저하 및 기술 격차(Skills-Gap)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포괄 성장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지원
  - **지역 및 국가** :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 및 경제적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 추진

- 산업 및 비즈니스 :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될 새로운 산업 생태계와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산업계와 정부 지도자들에게 가이드 라인 제시
- 미래 : 글로벌 시스템 재편을 위해 아이디어, 혁신 및 발견 등을 전세계적으로 공유

○ 2018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11대 과제와 14개의 시스템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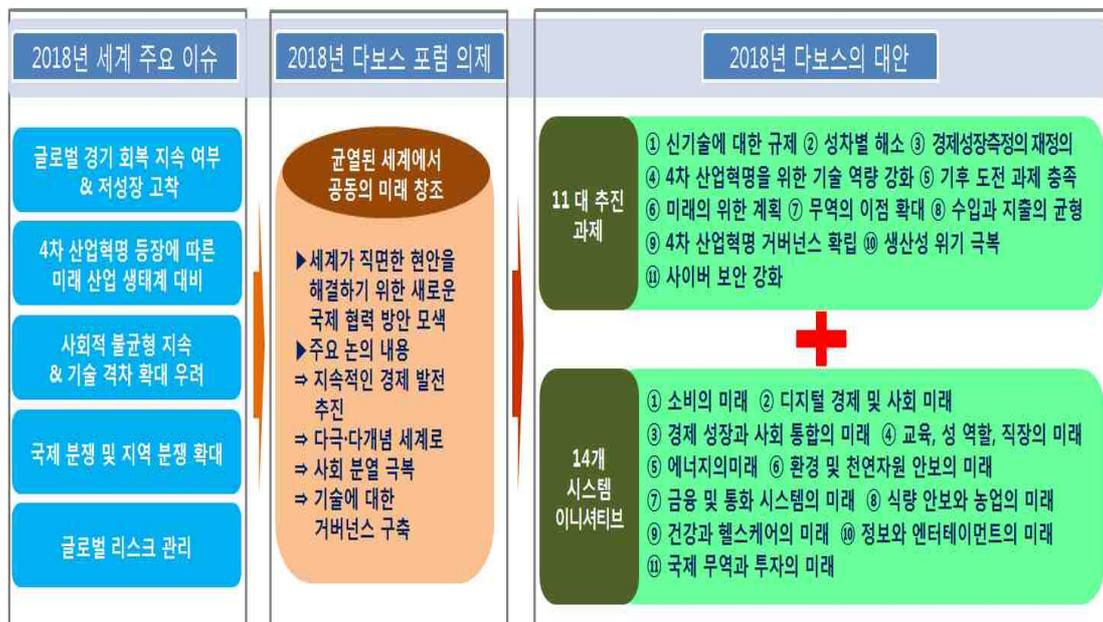
- 다보스 포럼은 11대 추진 과제

- 신기술에 대한 규제 : 2017년 3월 '4차 산업 혁명 포럼 센터'를 개설하였고, 이를 통해 정부, 기업, 신생 기업, 시민 사회, 학계 및 국제 조직을 결합하여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공동 설계
- 성차별 해소 :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미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먼저 출범 시키고 연내 전세계적으로 확대
- 성장의 재정의 : 지속 가능 성장과 포괄적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4차 산업 혁명을 위한 기술 역량 강화 :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취약한 기술에 대한 정의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기술 격차(Skills-Gap)를 줄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 기후 도전 과제 충족 :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지도자들의 약속 이행 강조
- 미래를 위한 계획 : 재정의 어려움 없이 100세까지 살 수 있는 로드맵 구성
- 무역의 이점 확대 : WTO, eWTP, 포럼 등의 지원을 통해 국제 금융 활성화와 무역 촉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확대
- 수입과 지출의 균형 : 부족한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하기 위해 순환 경제 활성화와 대체 가능한 자원을 지속 개발
- 제4차 산업 혁명의 거버넌스 확립 :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사회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 가이드라인 제시
- 생산성 위기 극복 : 미래의 제조 및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글로벌 협조 강화
- 사이버 보안 강화 : 사이버 보안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센터를 출범

- 또한, 14개의 시스템 이니셔티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

- 4차 산업혁명으로 그동안 진행되어오던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가 다양한 형태와 양상으로 분화되고 촉진되면서 미래의 경제 및 산업 구조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진화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 이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주요 기술 활용 사례 등을 통해 가 분야별 미래 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제시

< 2018년 다보스 포럼의 대안 >



자료 : 다보스 포럼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정리하여 도식화함.

4. 시사점

- 2018년 다보스 포럼은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 인류 전체의 운명과 공동 번영에 기반을 둔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한다는 의미를 가짐

- 자국우선주의 탈피,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 구축, 미래를 대비한 新 글로벌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공동 번영의 길을 찾기 위한 논의가 주조를 이룰 것임

- 특히 사회적 불균형을 축소하기 위한 '포괄적 성장', 지역 분쟁 및 갈등 확산에 따른 '글로벌 안전망'의 강화, 신기술의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적 합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강화될 전망

○ 이에 한국도 국제 공조 동참, 지속적인 성장 기반 구축, 국내외 위협 요인 대응, 사회적 갈등 축소 등을 위한 대응 방안이 필요

첫째, 글로벌 거버넌스의 참여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뿐 아니라 국내 사회의 선진화를 추진해야 한다.

- 체계적으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에서 거버넌스 전략을 수립하고, 규칙 메이커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에게 유리한 국제 질서를 조성

둘째, 성장잠재력 제고 노력과 창의와 혁신 주도 경제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 경제성장의 핵심 원동력인 자본축적과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 특히, 투자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R&D 투자에 대한 세액 지원 확대 등의 적극적인 정책 필요
- 민간주체들의 뛰어난 아이디어와 혁신적 활동이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임
-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로 인한 글로벌 위기의 상시화 가능성을 고려한 대외충격 파급경로의 관리를 통해 안정적 경제 성장 확보

셋째, 사회적 갈등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미래 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

- 사회적 갈등의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며, 부패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비경제적인 낭비요소를 제거해야 함
-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 제도 확립으로 기술 격차(Skills-Gap)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함
  -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에 대해서 정부와 국민간, 그리고 각 분야의 이해 당사자 간에 소통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

정 민 연 구 위 원 (2072-6220, chungm@hri.co.kr)